https://doi.org/10.5392/JKCA.2018.18.09.510

여성심리학 관점에서 분석한 남성동성애만화(Boys' Love manga)의 유희적 수용

A Feminist Psychological Analysis on the Playful Embracement of Boys' Love Manga

양성은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Sungeun Yang(syang@inha.ac.kr)

요약

본 연구는 이성애규범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수용하는 현상을 여성심리학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남성동성애만화의 국내 전개 과정과 확산 현황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는 남성동성애만화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쟁점, 남성동성애만화 독해의 심리적 기제와 과정, 그리고 남성동성애만화 수용의 기능과 효과를 논의하였다. 이론적 분석틀로서 고전적 정신분석학을 출발점으로 하여 주요 페미니즘 이론, 퀴어이론, 그리고 Huizinga의 호모루덴스 개념을 비판적으로 채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동성애만화는 이성애여성을 위한 로맨스로서 영원한 사랑과 평등한 애정관계라는 소망을 성취해주는 판타지로 장르화 된다. 이성애여성은 남성동성애만화를 통해 이성애가부장제로부터 심리적 탈맥락화를 실현하며, 텍스트 속 캐릭터와 분리되어 관음적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또는 젠더전복적 동일시를 통해 이분법적 성별 체계를 교란시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성 엄숙주의에 도전하는 유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성적 주체성에 대한 자각을 강화시킨다고 하겠다.

■ 중심어 : | 남성동성애만화 | 이성애가부장제 | 유희 | 판타지 | 여성심리학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henomenon of heterosexual women embracing Boys' Love manga within the heteronormativity context from a feminist psychological perspective. Specifically, the issue of genre characteristics of Boys' Love manga, women's psychological mechanism of reading Boys' Love manga, and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embracing Boys' Love manga were discuss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of analysis, I started from the classical psychoanalysis and critically adopted the concepts of the various camps of feminism, queer theory, and Huizinga's Homo Rudens. The results show that Boys' Love manga can be classified as a sub-category of the romance genre, which fulfills heterosexual women's desires of eternal love and equal partnership. From these wish-fulfilling fantasies, heterosexual women attempt to be decontextualized from the heteropatriarchism, to enjoy distancing and voyeuristic separation from the characters in the texts, and to disturb the dichotomous gender system through gender reversal identification. These processes, which can be regarded as a women's play challenging sexual rigorism, ultimately bring about an awareness of the female sexual subjectivity.

■ keyword : | Boys' Love Manga | Heteropatriarchism | Play | Fantasy | Psychology of Women |

접수일자 : 2018년 08월 02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9월 12일
교신저자 : 양성은, e-mail : syang@inha.ac.kr

I. 서 론

이성애성인여성(heterosexual women)이 남성들 간의 애정관계를 그린 만화를 읽는 행위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국내에서 남성들 간의 동성애를 다룬 만화에 흥미를 가진 서브컬처(subculture) 집단은 1980년대 초반의 여성만화동호회였다. 이 당시에 아마추어 동인지(dojinshi)에 국한되던 동성애 코드는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웹툰전문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만화산업 매출액은 9,762억 원, 사업체 수는 7,726개, 종사자 수는 약 1만 명에 이른다[1]. 이중 웹툰전문플랫폼 총 15개를 조사한 박성희(2017)는 2017월 5월 기준으로 이들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체 성인콘텐츠 중 남성동성애만화 콘텐츠가 29.3%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2]. 웹툰전문플랫폼들은 소비층성도가 높은 여성독자층이 남성들 간의 동성애만화를 선호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익성 원칙에 따라 해당 장르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애가부장제(heteropatriarchism)가 굳건한 국내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한다는 현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남성동성애만화의 수용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원국인 일본의 야오이(yaoi)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내에 유입된 야오이가 어떻게 남성동성애만화 장르로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과 이론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본에서의 발달

일본은 에도시대(1603-1867)의 사무라이 계층에서도 동성애 관행이 빈번했다. 이 당시에 남성동성애는 엘리트들 간의 관행으로 여겨졌으며, 남녀 간보다 남남관계가 상위의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3]. 남성동성애에 대해 관대했던 전통은 이후 일본의 각종 서브컬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 일본사회에서 남성동성애만화의 등장은 1970년대의 여성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1970년 11월 14일에 도쿄에서 시작된 "우먼리브(Women's Liberation)"는 여성해방 및 성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새로운 변화를 예기하였다. 하지만 여성이 성적욕망을 지닌 주체라는 주장과 달리 현실은 가부장적 체계 안에서 순결주의가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괴리로 인해 일본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표현 욕구는 소녀만화에서 소년들 간의 탐미적 동성애로 전환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Steijn은 1970년대 일본 동성애 만화의 시작이 "남녀의 선정적 묘사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허용적이었던 남남 소년애를 표현한 것"으로 조명한 바 있다[4].

이러한 남성동성애에 대한 역사적 허용, 성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성운동, 개인주의에 기반한 오타쿠(otaku) 취향에 대한 존중, 서브컬처와 판타지에 대한 관용 등이 뒤섞인 일본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본격적인 남성동성애만화인 야오이가 등장하게 된다. 야오이라는 용어는 1979년 12월 20일자 만화동인회 "라브리"가 낸 동인지 "랏포리: 야오이 특집호"에서 활자화되었다. 일본 만화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야오이는 특유의 동인문화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이야기에 클라이맥스가 없고, 완결도 없으며, 의미도 없다 (yamanashi ochinashi iminashi; no climax, no ending, no meaning)"의 첫 글자를 딴 남성동성애만화를 뜻한다[5].

이후 야오이라는 용어는 1980년 중반부터 아마추어 코믹마켓에서 널리 쓰이게 된다. 이 시기에 야오이는 동인지를 중심으로 2차 창작 방식으로 정착되었으며, 이후 패러디와 창작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된다. 199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야오이는 보이즈러브(Boys' Love; BL)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보이즈러브는 현재 야오이의 동의어처럼 혼용되지만 출발에는 차이가 있다. 아마추어 동인지를 중심으로 자생하면서 2차 창작이나 패러디를 중심으로 한 야오이와 달리 보이즈러브는 상업 매체를 통한 캐치프레이즈 형태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일본 출판계가 명명한 1990년대 초반의 "게이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남성동성애 콘텐츠에 대한 이성애여성들의 선호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연결된다[6]. 상업 지면을 통한 오리지널 창작 콘텐츠로서 보이즈러브의 등장은 동성애 관련 내용이 별다른 충격 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공개적으로 생산되며 소비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2. 한국에서의 전개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여성만화동호회를 중심으로 남성동성애만화가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들은 일본으로부터 야오이를 유입하여 아마추어 동인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일본대중문화 개방 조치에 따라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만화, 영화, 음악, 게임물 등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만화는 정부의 "즉시 개방" 분야였기에 출판사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식 계약을 통해 동성애만화를 배급하게 된다. 또한, 2004년에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동성애 관련 매체에 관한 금지조항이 소멸되고, 이후 일본을 포함한 외국의 동성애 코드가 대중문화에 대거 진입해 들어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도 만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만화 단행본 중 남성동성애만화인 "BL장르"가 전체의 4.2%를 차지한다[7]. 절대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아동 및 청소년물이 다수인 단행본 시장에서 성인물 중에서도 여성독자층 위주로 특화된 남성동성애만화가 단독 장르로 이러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2008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만화서비스를 증가시키면서 만화산업계는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 판도 변화를 겪게 되고, 웹툰전문플랫폼까지 등장한다. 유료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한 웹툰전문플랫폼은 소비층을 연령에 따라 세분류한 후 이들의 취향에 맞는 장르적 다양화를 통해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2013년 4월에 창립된 유료웹툰전문플랫폼 레진코믹스는 2014년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였고, 2017년에 웹툰플랫폼 중 가장 많은 157종의 웹툰을 제작하고 최대 연재 작품 수 383종을 기록하였다[7]. 레진코믹스는 소비자의 연령대("전연령" 또는 "성인")를 나누고, 본격적인 성인콘텐츠를 보급한 것을 성공 요인으로 본다. 특히 레진코믹스는 유료 독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들이 충성도를 보이는 남성동성애만화에 집중하였는데, 레진코믹스 홈페이지 상단 탭에 "BL"로 표기된 것이 바로 남성동성애만화인 보이즈러브이다.

이러한 레진코믹스의 성공에 주목하면서 이후 다른 웹툰플랫폼들도 성인여성독자층이 선호하는 동성애만화 장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8년 콘텐츠산업 전망"에서도 웹툰이 "특정 사용층의 욕망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성장(남성향/여성향 웹툰)"할 것을 예측하면서 "여성향 웹툰"인 남성동성애만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8,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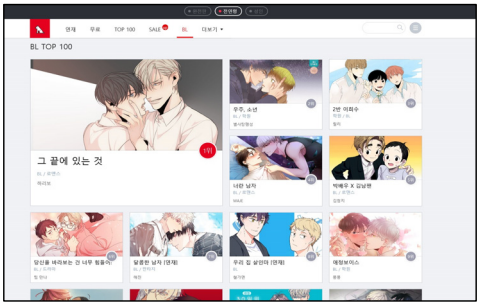

그림 1. 레진코믹스 카테고리 화면[9]

3. 연구의 목적

일본에서 기원한 야오이는 국내에서 남성동성애만화 장르로 정착되었고, 출판만화 및 온라인만화 시장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성애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성애성인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수용하는 현상을 여성심리학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동성애만화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쟁점, 남성동성애만화 읽기 행위의 심리적 기제와 과정, 그리고 남성동성애만화 수용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동기는 이성애규범주의(heteronormativity)가 굳건한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여성적 일탈행위나 비정상성으로 폄훼되어 온 남성동성애만화 수용 현상에 관해 대안적 해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남성동성애만화를 소비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는 생경함, 불편함, 다소의 혐오감 등이 혼합되기 마련이고, 학계의 논조 역시 고전적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에 근거한 부정적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남성동성애만화가 웹툰플랫폼을 기반으로 주류 장르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이를 소비하는 여성들을 병리적으로 보는 낙인화(stigmatization) 대신 여성심리학 관점에서 편견 없이 이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여성의 주체성, 특히 성적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담론화를 시도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의 대중적 확산은 여성들이 그동안 간과했던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게 하고, 침묵했던 바람을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기여해왔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남성동성애만화에 관심을 가졌던 국내 여성만화동호회는 "동인녀"라고 지칭하며, 비밀주의를 띈 음지의 서브컬처 집단으로 존재했다. 이후 현재까지 이성애여성의 남성동성애만화 수용은 일종의 여성적 유희 활동으로 엄연히 확산되어왔다. 하지만, 이 현상의 저변에 있는 여성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방적 논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남성동성애만화를 수용하는 여성 집단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이론적 접근

본 연구의 방법은 Kumasi, Charbonneau, and Walster가 제안한 "이론논의(theory conversation)" 방식이다[10]. 이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기존 이론들의 명제와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판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분석방법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수용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로서 Freud의 고전적 정신분석학을 출발점으로 하되 이에 대응하는 페미니즘 이론을 통해 반론을 제시하였다. 페미니즘 이론은 다양한 캠프를 아우르는데, 여기서는 1970년대 Firestone 등의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 1980년대의 성긍정주의 페미니즘(sex-positive feminism),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을 참고하였다. 동시에 퀴어이론(queer theory)에서 유용한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채택하고, 최근 재조명 받고 있는 Huizinga의 "호모루덴스(Homo Ludens)" 개념도 추가하여 본 현상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11].

본 논문에서 사용된 "남성동성애만화"는 보이즈러브만화(Boys' Love manga)를 지칭하며, 남성캐릭터들 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다룬 만화(homosexual manga)를 의미한다. 패러디에서 창작물로 확대된 야오이와 엄밀한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남성동성애만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여성의 심리적 측면에 두었다.

II. 남성동성애만화의 장르적 특성

남성동성애만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장르적 구분이 선제되어야한다. 최근에는 남성동성애만화를 전통적인 주류 로맨스 장르(romance genre)의 하나로 간주하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4]. 로맨스 장르의 핵심은 캐릭터들 간의 애정관계와 정서적 교감인데[12], 이는 남성동성애만화에 그대로 재현된다. 남성동성애만화에도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하지만 이는 애정관계의 부수적 또는 결과적 행위이며,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와는 다르다는 점도 로맨스 장로로서의 구분을 타당하게 한다.

그림 2. 남성동성애만화의 전형적 작품 표지[17][18]

한편, Nagaike는 남성동성애만화에 등장하는 성적 요소에 주목하면서 "[남성동성애만화를] 아름다운 남성동성애 캐릭터들 간의 극적인 긴장감을 강조하는 포르노그래픽 로맨스(p. 95)"라고 정의한 바 있다[13]. 남성동성애만화의 소비자와 생산자 대부분이 이성애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Steijn과 Nagaike의 구분에 "이성애여성을 위한"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밝히는 것이 명료할 것이다[4][13]. 이는 이성애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나 주로 동성애남성을 타깃으로 동성애남성작가에 의해 제작되는 바라(bara; Men's Love)와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성동성애만화를 "이성애여성을 위한 포로노그래픽 로맨스"로 간주하게

되면 그 본질은 이성애여성의 정서적 및 성적 소망을 성취해주는 판타지(wish-fulfilling fantasies)라고 볼 수 있다.

남성동성애만화에 등장하는 중심 주제를 보면, 판타지로서의 특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남성동성애만화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첫 번째 주제는 일부일처제(monogamy)를 기반으로 하는 영원한 사랑(eternal love)이다. 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준비된 세계관 속에서 캐릭터들은 사랑을 향한 힘겨운 과정을 전형적으로 겪어낸다. 이성애여성독자들은 이러한 로맨틱 판타지 속에서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영원한 사랑에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다.

허구성이 강한 남성동성애만화 속에는 캐릭터들이 겪는 성소수자로서의 쟁점이 함축적으로만 언급된다. 이에 대해, 본인이 게이(gay)이며 남성동성애 로맨스 작가인 Fessenden은 "이성애여성작가가 쓰는 남성동성애 로맨스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사로 가득하기 때문에 좌절을 준다. 여기에는 일부일처제를 기반으로 두 남성의 배타적 애정관계가 그려진다. 사실 다수의 게이 커플은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이다. 많은 동성애남성들은 이성애여성작가가 쓴 남성동성애 로맨스를 읽기 힘들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14]. 이러한 Fessenden의 지적은 남성동성애만화가 이들의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성동성애만화의 본질적 특성, 즉 이성애여성의 낭만적 환상을 재현하는 판타지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성동성애만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주제는 관계적 평등성(equality)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중심주의에 입각한 로맨스가 "성별에 의한 위계적 관계를 낭만화하여 성애를 훈육하는 과정[15]"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남성동성애만화에는 대등한 파트너쉽(equal partnership), 비위계적 성관계(nonhierarchial sexual relationships), 영적인 동성사회적 유대감(spiritual homosocial bonds)이 묘사된다[13]. 이성애여성들은 남성동성애만화를 통해 평등한 애정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한편, 모든 남성동성애만화가 평등한 애정관계를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Zhou, Paul, and Sherman은 중국의 남성동성애만화 87편에 나타난 캐릭터들의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남성동성애만화에서도 이성애규범주의에 입각한 전형적 성역할(gender stereotype)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16]. 남성동성애만화의 특징을 관계적 평등성으로 설명한 기존 연구들과 다른 본 결과는 논의가 더 요구되지만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Ⅲ. 남성동성애만화 읽기 행위의 심리적 기제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읽으면서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정서적 경험을 하며, 이를 야기하는 기제(mechanism)는 무엇지에 대한 분석은 개인심리학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가능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성동성애만화를 읽는 여성에 대해 다수의 심리학자들은 "여성 혐오에 빠진 여성, 남성에게 복수하고 싶은 여성 또는 그 반대로 남성으로 거듭나고 싶은 여성,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화되어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여성" 등의 부정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주장들은 고전적 정신분석학을 근간으로 Freud의 남근선망(penis envy)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Matsui는 "Little girls were little boys: Displaced femininity in the representation of homosexuality in Japanese girls' comics"라는 저술을 통해 남성동성애만화 속에 등장하는 소년들은 [남근이 없는] 소녀들의 자아를 대체하는 존재라는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한 바 있다[19].

하지만, 페미니즘에서는 남근선망이 아니라 가부장제야말로 여성들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읽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가부장제는 소녀들에게 순결주의 규범을 아동기부터 강요하고, 이를 강요당한 소녀들은 성행위에 대한 공포를 내재하면서 성장을 멈추어 무성적인(asexual) 존재로 남으려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 시각과 함께 2000년대 이후에는 이성애여성의 남성동성애만화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논조가 증가한다. 특히 정신분석학에 대한 반론가들은 남성동성애만화가 남근선망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의도하기 보다

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위한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퀴어이론의 비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Freud의 이론이 "이성애를 정상으로 규정한 이성애규범주의"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퀴어이론은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이성애 또는 동성애로 양분할 수 없이 다양하며, 심지어 유동적(fluid)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담론들을 고려하여, 이성애여성의 남성동성애만화 수용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이성애가부장제로부터의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 텍스트로부터의 거리두기(distancing)와 관음적 분리(voyeuristic separation), 그리고 텍스트 속 캐릭터에 대한 선택적 동일시(selective identification)와 투사(projection)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이성애가부장제로부터의 탈맥락화

이성애여성은 남성동성애만화를 통해 이성애가부장제로부터의 탈맥락화를 경험할 수 있다. 남성동성애만화 속의 캐릭터들은 임신에 대한 걱정 없이 성적욕망을 표출하고,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아동을 돌봐야 하는 양육자의 책임 없이 연인관계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남성동성애만화는 이성애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의무로부터 "탈(脫)"할 수 있는 매체인 동시에 심리적 도피처가 될 수 있다.

이성애로맨스에 등장하는 여성캐릭터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규범 밑에 놓이며, 심지어 픽션 안에서도 이들에게 부과된 재생산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Firestone이 페미니즘의 고전 "The dialectic of sex: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에서 "임신은 야만적(barbaric)"이라고 언급하면서 임신, 출산, 양육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강조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20].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이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Firestone의 주장 후 약 반세기가 흐른 시점에서도 여전히 "82년생 김지영" 같은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심리적 탈맥락화가 필요한 이성애여성들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선택하는 것을 수긍하게 한다.

2. 텍스트로부터의 거리두기와 관음적 분리

읽는 행위는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 속 캐릭터에게 감정이입과 동일시를 유발한다. 여성독자는 이성애로맨스를 읽으면서 여주인공에게 동일시하거나 또는 반대로 남주인공을 놓고 여주인공과 경쟁하는 위치에 놓인다. 매번 자신이 몰입해야하는 대상이 가부장제 하의 약자인 여주인공이라면 독자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남성동성애만화 속에서는 독자인 이성애여성이 남주인공과 경쟁하거나 연인을 빼앗기는 것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주인공에게 억지로 동일시할 필요가 없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텍스트로부터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읽는 행위의 즐거움은 증가할 수 있다.

텍스트로부터의 거리두기에서 더 나아가 남성동성애만화는 이성애여성독자에게 관음적 분리의 기회를 갖게 한다. 대다수 이성애로맨스는 여주인공 신체의 전시화 및 대상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남성동성애만화 속에서는 여성독자가 남성캐릭터들의 관계를 관음할 수 있다. 타인의 성적 활동을 바라보는 데서 쾌감을 얻는 관음증(voyeurism)은 바라보는 자를 그 행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적 기능을 가진다. 남성동성애만화를 통해 이성애여성은 자신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 분리된 남성캐릭터들간의 성적 관계를 관음할 수 있는 힘 있는 위치를 가상적으로나마 차지할 수 있다.

3. 캐릭터에 대한 선택적 동일시와 투사

남성동성애만화를 통해 여성독자는 텍스트로부터 거리를 둔 관음적 응시자를 넘어서서 보다 능동적으로 남성동성애만화 속의 캐릭터에게 선택적 동일시도 할 수 있다. 이성애로맨스 안에서는 여주인공에게 동일시하도록 제한받던 이성애여성이라도 남성동성애만화 속에서는 공(攻, seme), 수(受, uke), 또는 공수의 역할을 바꾸면서 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젠더전복(gender reversal)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젠더전복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규범, 역할, 외형 등을 해체하며, 젠더의 경계를 넘나드는 의도된 행위를 뜻한다[21]. 이때 남성동성애만화는 앤드로니지(androgyny)를 구현

하는 가상공간이 된다. 앤드로지니는 심리적 양성성으로서 양성의 긍정적 특성과 미학을 함께 갖춘 존재를 의미한다[22]. Bem은 양성성이 높은 개인이야말로 상황에 적합한 유연성, 적응력, 심리적 건강성을 지닌 존재로 평가한 바 있다[22].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라는 가상공간 내에서 캐릭터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격이나 역할에 따라 동일시할 대상을 선택하고 투사하는 것은 일종의 유희적 젠더전복을 통해 앤드로지니를 구현하려는 시도로 유추해볼 수 있다.

Ⅳ. 남성동성애만화 수용의 기능과 효과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수용하는 행위는 여성 중심의 유희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여성이 성적주체성을 형성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 이성애여성 중심의 유희

이성애여성의 남성동성애만화 수용을 정신분석적 남근선망이나 결핍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대신 재미, 흥미, 기쁨을 찾는 유희로 조명하면 대안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Huizinga가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에서 보여준 사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1]. 호모루덴스는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유희적 인간[23]"으로 풀어볼 수 있다.

Huizinga에 따르면, 놀이는 실제의 삶에서 벗어나 재미를 추구하는 자발적인 탈일상적 행위로서 즐거움, 자유로움, 해방감을 동반한다[11]. 놀이 속에서는 미(美)에 대한 감각, 성(聖)스러움, 진지함 등이 흥겨움과 융합되면서 그 구분이 사라진다. 어떠한 유용성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놀이하는 주체는 목적의식이나 이해관계 없이 놀이대상을 바라보는 관조적 견지에 서서 상상력, 허구성, 환상, 투사 등을 발휘한다. 또한, 놀이주체는 놀이 속에서 긴장, 변주, 전환, 평형 등을 경험한다.

Huizinga의 이론은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읽는 행위를 놀이로 간주하는 것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이성애여성은 남성동성애만화를 읽으면서 이성애가부장제로부터의 탈맥락화가 가져오는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낀다. 또한 텍스트로부터 거리감을 갖는 동시에 자유롭게 투사하며 자신이 선택한 허구적 캐릭터에게 동일시된 경험을 한다. 플롯에 따른 긴장과 이완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무엇보다 즐거움을 얻는다. 이 행위 속에는 남성동성애자들의 실존적 현실을 학습한다거나 이들과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등의 목적의식은 찾기 어렵다. 그 대신 상상으로 구축한 비현실적 존재들에 대한 관음적 쾌락과 앤드로지니 환상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유희로 접근하는 실증적 예시로 보이즈러브 팬덤(fandom)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 학자인 Galbraith는 남성동성애만화의 열성적 여성팬 집단인 일본의 후조시(fujoshi; rotten girls)를 관찰하였다. Galbraith는 "Fujoshi: Fantasy play and transgressive intimacy among 'rotten girls' in contemporary Japan"에서 후조시가 남성동성애만화를 통해 "판타지 놀이(fantasy play)"를 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유대감을 공유한다고 분석했다[24]. 이들의 집단적 유희는 1975년부터 시작되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의 세계 최대 이벤트가 된 일본 코미켓(Comiket; Comic Market)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 형태로 발전되었다[25]. 또한, 중국의 보이즈러브 팬덤을 연구한 Zhang은 "Loving boys twice as much: Chinse women's paradoxical fandom of 'boys' love' fiction"이라는 논문을 통해 남성동성애만화의 유희적 기능을 조명한 바 있다[26]. Zhang은 중국 후조시를 면접한 후 이들이 남성동성애만화를 통해 진부한 이성애 스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며, 관음적 즐거움을 향유하고, 가부장적 성별체계를 유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남성동성애만화가 실제 동성애남성 간의 관계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다는 비판[27]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동성애만화의 장르적 구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성동성애만화는 이성애여성의 소망을 성취해주는 판타지일 뿐임을 직시해야한다. 이성애남성 소비층을 위한 포르노그래피가 현실의 여성을 대변하지 않는 것처럼 남성동성애만화 속 남성들도 실존체가 아닌 허구이며, 여성 욕망의 집합이 표상화된 대상체일

뿐이다. 그리고 성인여성 독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실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성동성애자들의 실제 갈등이나 쟁점은 전문화된 퀴어만화 장르나 다큐멘터리에서 다룰 수 있으며, 보이즈러브는 이성애여성들의 유희적 장르로서 유용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허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물과 성인물은 심의등급에 따라 구분되어 유통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성적 주체성의 형성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간과되며, 이를 표현하면 낙인화(whore stigmatization)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28]. 하지만 유희로서 남성동성애만화에 대한 수용은 이성애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각할 가능성을 높인다. 스스로 쾌락을 느끼는 성적 주체임을 인지하게 되면 이를 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행위자로 위치 전환을 원하게 된다[29]. 특히 이성애로맨스나 포르노그래피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은 남성동성애만화를 통해 객체가 된 남성을 응시할 수 있는 주체의 시선을 갖게 되며,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남성과 대등한 위치가 된다. 이는 유희를 통한 일종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성동성애만화에 나타나는 과도한 성적 노출은 페미니즘 감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여기서 성긍정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페미니즘(anti-pornography feminism)과 달리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한 성긍정주의 페미니즘은 Laura Kipnis, Susie Bright, Naomi Wolf, Sharon Presley, Nina Hartley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성적 자유에서 온다"고 역설하였다. 성긍정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포르노그래피 향유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가부장 사회에서 제작된 포르노그래피는 여성에게 남성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여성들만의 포르노그래피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억제 당해왔던 성적 욕망을 인식하고, 성적 환상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윤리적으로 제작된 여성주의적, 여성친화적, 대안적 포르노그래픽 콘텐츠를 지칭하는 것이다.

현재 유통되는 남성동성애만화가 모두 페미니즘 텍스트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용하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이성애여성의 유희로서의 기능과 성적 주체성을 상기시키는 효과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성동성애만화 속에서 성적 요소를 거세해야한다거나 또는 퀴어적 고민을 담아내야만 한다는 당위론은 가부장제의 성 엄숙주의(sexual rigorism)만큼이나 강요일 수 있다. Huizinga은 호모루덴스를 통해, 놀이는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면 결국 문화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11]. 남성동성애만화의 유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유희적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 결과물에 대해 여유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이성애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수용하는 현상을 여성심리학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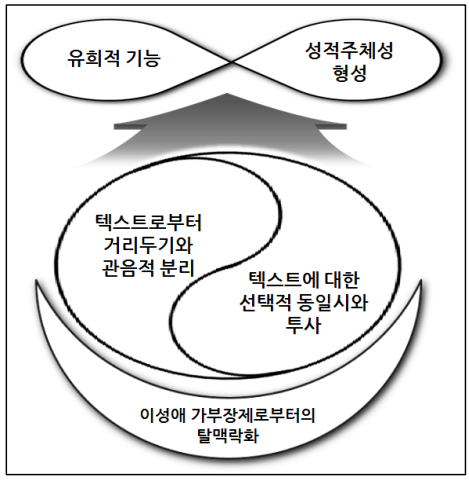

그림 3. 남성동성애만화 수용의 심리적 기제 및 기능

남성동성애만화는 이성애여성을 위한 로맨스로서 영원한 사랑과 평등한 애정관계라는 소망을 성취해주는 판타지로 볼 수 있다. 이성애여성은 남성동성애만화를 통해 이성애가부장제에서 벗어나는 일탈을 실현하며, 텍스트 속 캐릭터와 분리되어 관음적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또는 젠더전복적 동일시를 통해 이분법적 성별 체계를 교란시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Barral은 여성이 남성동성애물을 선택하는 것은 남녀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및 심리적 제약을 거부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30]. 이처럼,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수용하는 행위는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가치로부터의 도피인 동시에 가부장제가 규정한 여성성에 대한 문화적 저항으로 확대해볼 수 있다. 결국, 이성애여성이 남성동성애만화를 수용하는 것은 성 엄숙주의에 도전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유희로 평가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성적 주체성에 대한 자각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출판만화 및 온라인만화 시장에서 남성동성애만화의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소수 집단이 폐쇄적으로 공유하던 텍스트를 양지로 가져와서 일종의 주류 장르로 부상시키는 노력은 다양한 욕구, 다양한 취향,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허용도(social tolerance)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류와 비주류, 정상과 비정상, 절대다수와 극소수 등의 이분법적 잣대를 허무는 시도로서도 남성동성애만화의 유용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남성동성애만화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그 내용이나 형식이 특정 집단(예: 성소수자, 미성년자 등)을 소외시키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 민감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출발점인 이성애가부장제 하에서의 동성애만화 수용에 대해 다시 상기할 점이 있다. 이성애가 규범인 맥락에서 이성애여성이 이성애로맨스를 읽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남성동성애만화를 읽기 때문에 이 "비정상" 상태가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성애여성의 소망이 이성애로맨스 대신 남성동성애로맨스에서 충족된다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며, 이성애여성이 성적 주체감을 느끼면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의 생산이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성별이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때문에 현실로부터 도피처를 찾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만화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 박성희, *남성동성애(BL: Boys' Love) 장르성인만화의 국내 유입 및 장르 특화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 M. J. McLelland, *Male Homosexuality in Modern Japan: Cultural Myths and Social Realities,* Routledge, 2000.

[4] B. Steijn, *Dissolving Heternormativity through the Analysis of Slash Fiction and Boys' Love Manga.* Leiden University, Master Thesis, 2016.

[5] D. Pagliassotti, K. Nagaike, and M. McHarry, "Editorial: Boys' Love Manga Special Section," Journal of Graphic Novels and Comics, Vol.4, No.1, pp.1-8, 2013.

[6] R. Osaka, *「腐女子」の社?史: 女性による女性のための男性同性愛小?の社?史,* SAKA, 2015.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7 만화통계 카드뉴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8.

[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콘텐츠산업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9] https://www.lezhin.com/ko/bl, 2018.6.12.

[10] K. D. Kumasi, D. H. Charbonneau, and D. Walster, "Theory Talk in the Library Science Scholarly Literature: An Exploratory Analysi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35, No.3, pp.175-180, 2013.

[11] J. 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English ed.),* Routledge & Kegan Paul Ltd, 1949.

[12] 김소원, "초기 순정만화와 소녀만화의 스토리 형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109-118, 2015.

[13] K. Nagaike, "Perverse Sexualities, Perversive Desires: Representations of Female Fantasies and Yaoi Manga as Pornography Directed at Women," U.S.-Japan Women's Journal, No.25, pp.76-103, 2003.

[14] https://jamiefessenden.com/2014/06/28/my-take-on-women-writing-mm-romance/, 2018.6.13.

[15] S. Jefferys, "Heterosexuality and the Desire for Gender," *Theorising Heterosexuality*,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pp.75-90, 1996.

[16] Y. Zhou, B. Paul, and R. Sherman, "Still a Hetero-Gendered World: A Content Analysis of Gender Stereotypes and Romantic Ideals in Chinese Boy Love Stories," Sex Roles, Vol.78, No.1-2, pp.107-118, 2018.

[17] 해진, *달콤한 남자1,* 학산문화사(만화), 2017.

[18] 아이반, *그들은 XX가 아니라고 말한다,* 대원씨아이(ebook), 2017. URL :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division/comicDivisionDetail.ink?barcode=4831704140145, 2018.6.14.

[19] M. Matsui, "Little Girls Were Little Boys: Displaced Femininity in the Representation of Homosexuality in Japanese Girls' Comics,"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Allen & Unwin, pp.177-196, 1993.

[20] S. Firestone, *The Dialectic of Sex: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70.

[21] 정승화, "순정만화의 젠더 전복 모티브에 나타난 앤드로지니 환상과 젠더화의 불만," 페미니즘연구, 제8권, 제1호, pp.159-190, 2008.

[22] S. L. Bem, W. Martyna, and C. Watson, "Sex Typing and Androgyny: Further Explorations of the Expressive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4, No.5, pp.1016-1023, 1976.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URL :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8.6.13.

[24] P. W. Galbraith, "Fujoshi: Fantasy Play and Transgressive Intimacy among 'Rotten Girls' in Comtemporary Japan," Signs, Vol.37, pp.219-240, 2011.

[25] P. W. Galbraith, "Moe Talk: Affective Communication among Female Fans of Yaoi in Japan," In M. McLelland, K. Nagaike, K. Suganuma, & J. Welker (Eds.), *Boys Love Manga and Beyond: History, Culture, and Community in Japan* (pp.153-168), Jackson, MS: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15.

[26] C. Zhang, "Loving Boy Twice as Much: Chinese Women's Paradoxical Fandom of "Boys' Love,"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Vol.39, No.3, pp.249-267, 2016.

[27] G. M. Foster, "What To Do If Your Inner Tomboy Is a Homo: Straight Women, Bisexuality, and Pleasure in M/M Gay Romance Fictions," Journal of Bisexuality, Vol.15, No.4, pp.509-531, 2015.

[28] G. Scambler, "Sex Work Stigma: Opportunist Migrants in London," Sociology, Vol.41, No.6, pp.1079-1096, 2007.

[29] 권하진, "영화 '로렌스 애니웨이'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191-202, 2015.

[30] E. Barral, 송지수 역, *오타쿠 가상 세계의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2002.

저 자 소 개

양 성 은(Sungeun Yang) 정회원

- 2002년 1월 : University of Minnesota, Dept. of Family Social Science(Ph. D.)
- 현재 :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정교수

<관심분야> : 질적연구방법론, 가족스트레스, 현대사회의 다양성